

제3권은 1960년대부터 2010년에 이루어진 한국기독교사에 대해 저자는 사건과 연대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 위주로 서술하였다. 전반적으로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관점에서 기술하였다고 본다. 약 50년에 이르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토대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성공 모델로 일어서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개신교 역사 또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종교로 성장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는 선교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한국개신교는 지난 반세기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 그리고 세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분단 상황에서 반공을 앞세워 체제의 안정과 놀라운 기여를 감당해 왔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서술 되었는지 제3권의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6부 27장으로 구성하였고, I부는 혁명과 정체성 파악의 시대로 세부 내용으로서 혁명시대의 한국교회, 세계교회협의회와 하나님의 선교, 한국교회의 토착화논쟁, 한국장로교회 분열과 일치를 위한 노력 등 총4장으로 구성되었다. II부는 대중전도운동과 한국교회성장으로 세부 내용으로 대중전도운동과 민족복음화운동,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 급성장한 한국교회 주류교단인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운동과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급부상 등 총4장으로 구성되었다. III부는 전환기의 한국교회로 세부 내용으로 민주화화 근대화 과정 그 격변의 한국교회, 교단의 분열과 신학교의 난립, 심화되는 한국교회의 양극화 등 총3장으로 구성되었다. IV부는 한국복음주의운동과 해외선교운동으로 세부 내용으로 근대복음주의운동과 한국복음주의운동, 한국복음주의교회의 급부상, 제자운동과 복음주의운동의 확산, 평신도운동과 평신도 리더십의 급부상, 한국교회 해외선교운동 등 총5장으로 구성되었다. V부는 도전받는 한국교회로 세부 내용으로 한국천주교의 놀라운 성장, 급부상한 한국교회 이단세력, 한국교회의 침체와 위기, 한국교회 신학사상 논쟁, 예장통합: 성경적 복음적 에큐메니칼 신학, 예장합동: 개혁파 장로교전통과 복음주의유산 등 총6장으로 구성되었다. VI부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한국교회로 세부 내용으로 한국교회의 통일논의, 평양대부흥 100주년: 이 땅 부흥케 하소서, WCC변천: 암스테르담부터 부산총회까지(1948-2013),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변화, 반성, 과제로 총4장으로 구성하여 제3권을 이루고 있다. 1960년대 한국교회는 한국의 근대화와 더불어 진행하였다. 특별히 민주주의, 경제발전, 세계화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키워드이다. 한국교회 또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민족복음화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일어났는데 친공과 반공, 정통과 이단, 도시와 시골,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화되었다. 특히 한국교회도 보수와 진보로 뚜렷이 양분되었다. 1990년대 중반이후 한국교회는 교회성장, 급속한 세속화, 교세 하락과 침체를 함께 겪고 있다. 1960년대 이후 WCC로 인해 심각한 분열의 과정을 거쳤다. 놀라운 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에 깊숙이 물들기 시작했다. 교회는 서서히 물질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한 영혼에 집중해야 할 교회가 물질주의 물량주의에 물들면서 나타난 안타까운 현상을 목도하게 되었다. 복음전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닌 개 교회를 선전

하는 것이 되었다. 복음의 대사회적 책임 구현 실패로 기독교의 비판과 반기독교 세력들이 형성되고 세속화, 이단의 세력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의 갈등이 일어났다. 오늘날 동성애문제, 정부의 종교인 과세, 이슬람 세력의 도전, 기독교인 인구의 급속한 하락과 해외선교 열과 선교 인적자원 급감, 교회의 세속화, 국내 목회자 지원생과 해외 신학교 유학생의 급감, 목회자들의 성적 타락, 윤리부재 등 많은 문제들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본래의 사명, 복음전파, 복음의 순수성 계승, 복음의 대사회적 책임을 온전히 회복해야하는 절대 절명의 기로에 서있다.

1960-2010년은 한국과 기독교역사에 있어서 숨 가쁘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3권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인생전반에 대한 역사의 숨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감회가 새롭게 느껴진다. 1973년에 태어난 70년대 세대로서 70년대부터 시작된 역동적인 경제성장, 80년대 광주민주화 항쟁을 나의 고향인 광주에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그 당시 초등학생인 나로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각 교회마다 새벽기도, 부흥회, 성경사경회, 기도원집회 등 애타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전국방방곡곡에 끊이지 않았다. 중고등학교 시절 민주주의를 향한 광주 시민들의 열망으로 5월이 되면 데모하는 대학생들과 이를 막는 전투경찰사이에 벌어진 시위진압의 산물인 화염병과 체류 탄으로 광주 도심지와 대학가는 연일 치열한 아픔의 현장을 눈으로 지켜보았다. 80년대와 90년대 경제성장과 세계화를 통해 한국의 위상이 세계를 넘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국위를 선양하는 역사를 보게 된다. 민주주의, 경제발전, 세계화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놀라운 역사를 대변해 준다. 짧은 시기에 압축 성장을 이뤄 과도기적 현상을 보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모든 국민들은 치열한 한국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터에서 학교에서 부지런히 앞만 보고 달려갔다. 성실 근면한 모습으로 살아왔다 믿는다. 부모 세대의 희생과 노력으로 산업화를 이루었고 경제적인 성장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자원 하나 없는 한국사회에 자식 교육만이 잘 사는 길임을 자각하고 교육열이 식지 않고 지속된 것도 한국인만의 특징이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고도성장의 그늘 가운데 잘못된 관습과 비리가 기생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과 함께 한국교회의 위상은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최초 해외 선교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희망 없는 동토의 땅에 불과한 한국은 복음의 물결로 복음주의운동과 대중전도운동, 해외선교운동이 활발히 진행된 은혜의 나라가 되었다. 한국교회가 이끌어온 한국사회는 그 영향력이 지대하였으며 위상 또한 높아졌다. 그 당시 교회 간판만 달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마다 교회는 그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민주화와 안보,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싶다. 특이한 점은 교회뿐만 아니라, 방송, 출판, 교계, 선교단체, 신학교, 선교계 등 모든 복음주의 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주의와 사회책임에 대한 소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주었다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었으며, 교회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

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모습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커서 부흥회, 말씀 사경회가 열리면 1주일 동안 열렸으며, 새벽, 오후, 저녁집회까지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던 모습을 기억한다. 마치 현재의 중국교회성도들이 그렇듯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몇날 며칠이 걸려 와서 듣는 열정과 사모함을 보는 것과 같다. 한국기독교교회사 제3권을 통해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은 복음 본연의 사명에 충실히 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맞물려 한강의 기적이라 할 수 있는 눈부신 경제성장, 세계화, 경제, 산업, 스포츠, 문화에 있어 비약한 발전을 가져왔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일본과 함께 월드컵 개최, 한류의 물결(한국어, 드라마, 영화, K-Pop)을 기반으로 인해 세계선교가 성장하였던 것이다. 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아시안 동양중심의 선교로 대체되었다. 한국이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졌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으로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민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마음 아픈 그늘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 물량위주, 세속주의, 개 교회 이기주의, 작은 교회와 더불어 상생하지 못하고 대형교회, 큰 교회를 중심으로 양극화 되었다. 개척교회의 미 자립 비율이 높아지고 영적 리더들의 타락, 대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함으로 비롯되었다 판단된다. 복음의 순수성 계승, 복음전파 사명이 소홀해 졌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제가 안정되고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주5일근무제가 정착하였으나 반면에 신앙이 후퇴되고 웰빙이 시대의 대세가 되면서 인본주의, 개인 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 향락주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교회마다 주중 모임이 사라지고 주일 저녁예배, 철야예배, 수요일예배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성도들 대다수가 노인에 이르기까지 맞벌이로 인해 집에 사람이 없고 직장으로 출근함에 따라 교회 주중 모임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다. 무엇보다 기도의 불이 꺼진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영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신앙생활에 외부적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감에 따라 외부 유혹에 노출되어 신앙생활에 큰 방해요소가 자리 잡았다. 교회를 떠나려 하는 청소년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으로서 가나안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다. 세상문화에 정복당하고 세상 가치관이 마치 진리인양 착각하고 이단이 이러한 틈을 타서 기존 교회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삼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개신교는 이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2의 한국 경제가 부흥기를 맞이하고 영적 지도자들은 깨어나 다시 교회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디아스포라 성도들과 조선족, 고려인등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나온 한국기독교사를 보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모든 사건의 뒤안길에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보게 됨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북한을 오래 참으시지 않으며,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시리라는 믿음을 갖는다.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며 민족복음화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